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 수 신 : 제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언론사
- 발 신 :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 일 시 : 2017년 11월 16일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근절과 시민사회단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회의입니다.

○ 대책회의는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22회 조직위)>에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2017년 11월 9일에 발송했습니다. 이후 22회 조직위는 대책회의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1월 12일에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본 대책회의는 22회 조직위의 공개질의 답변을 첨부하며 22회 조직위의 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끝

- 담 당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메일 svpcc@hanmail.net)

※ **대책회의 참여 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은혜의 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정음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군산성가정의 집,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나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새벽이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 YWCA 사랑의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김제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노동당 전북도당, 녹색당 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총 53개 기관)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1. 대책회의가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22회 조직위)에 입장을 질의했던 것은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의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21회 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1회 영화제의 주최자가 개별 단체들이 아니라 21회 조직위라고 한다면 주최단위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것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전주인권영화제라는 이름을 표명하고 있는 22회 조직위가 뒤늦게라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대책회의가 공개질의로 밝힌 것처럼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22회 조직위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영화제 준비과정이 아닌 대책회의의 공개질의서의 전달 이후인 점, 영화제 준비 전에 성폭력 사건을 환기하며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영화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부재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 22회 조직위가 대책회의의 질의에 회신한 것처럼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에서의 준비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계획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위가 이러한 계획을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21회 조직위 관계자와 관련된 2차 가해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22회 조직위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에서 회신 내용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영화제 과정 또는 이후라도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성 있는 인권침해 예방계획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22회 조직위가 회신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인권영화제는 ‘소외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준비 과정 역시 인권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22회 조직위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비롯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영화제 준비 과정에 반영하는 것 역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2회 조직위가 이와 같은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영화제를 진행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지점입니다.
5. 22회 조직위가 이와 같은 대책회의의 입장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이후에 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정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끝

2017. 11. 16.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